

교환학생 보고서

이 름	한 글	채명훈	영 문	MYEONGHUN CHAE
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예나응용과학대학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교환학생을 다녀온 친구가 교환학생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해줘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살면서 학교생활, 일상생활, 문화 차이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며 몸소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서류준비는 교환학생이 확정되면 예나학교에서 메일이 옵니다. 그 메일의 내용에 관한 서류제출이나 신청, 답장을 하면 됩니다. 비자발급은 한국에서 해도 되지만 독일에 가서 하는 것이 편합니다. 비자발급과정은 학교에 가면 만나게 되는 튜터가 설명 해 줄 것입니다. 항공권 구입은 출발일과 귀국일이 정해지면 구입하면 되고 같이 가는 사람과 같이 구입하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 귀국일 변경을 원할 시 같이 구입한 사람 모두 같은 날에 변경해야 하며 혼자만 다른 날에 귀국은 못하게 됩니다. 기숙사신청은 교환학생 합격발표가 있고 몇 달 뒤에 기숙사신청 관련 메일이 오는데 빨리 할 수록 좋습니다. 기숙사는 보통 Carl Zeiss, Siegfried, Moritz 3개를 지원하게 되며 각각의 건물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학교크기는 금오공대보다 약간 작으며 버스타고 7분거리에 Zentrum이라는 시내가 있습니다. Thoska라는 학생증을 받으면 예나지역 포함 튀링겐주 지역 버스, 트램, 기차(지역열차 종류만 가능, 고속열차 해당 안 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예나지역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카드를 찍는 곳이 없어 그냥 타고 내리면 되며 가끔 검표원이 표검사를 하는데 학생증 미소지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여름에는 해가 늦게 저 밤 9시에도 많이 어둡지 않습니다. 학교 옆에 큰 마트가 있으며 물가가 저렴하여 금전적 부담 없이 식재료를 살 수 있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수강신청은 학교 오리엔테이션에 가면 조가 정해집니다. 그 조에 정해진 과목과 시간표가 있으며 자기가 듣고싶은 과목만 들으면 됩니다. 영어수업 수강을 원할 시에는 버스를 타고 약 7분 거리에 있는 Friedrich Schiller Universität라는 학교에서 수강을 해야합니다. 예나학교와 학점을 교류를 하는 곳이지만 이곳 학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학생등록을 해야하며 영어수업 수강 시 수강료도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영어 1과목당 약 20유로)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기숙사는 보통 Carl Zeiss, Siegfried, moritz 3가지 기숙사를 지원하게 되는데 제가 살았던 Siegfried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인실을 쓰고 룸메이트 4명에서 화장실, 부엌을 공유하며 쓰는 방식입니다.

다른 건물 기숙사와 비교하면 방이 넓은 장점이 있지만 건물이 오래됐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약 300유로, 한 달 방값은 약 30만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1순위로 Carl Zeiss를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교와 가깝고 신축이며 2명이서 쓰기 때문에 생활할 때 편리합니다. 평균 생활비는 제가 생활했던 기준으로 여행을 가지않고 학교만 다닌다는 가정하에 보통 하루에 약 10유로, 약 13000원을 씩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보험료 10만원, 핸드폰13000, 인터넷 13000 즉 방값+보험료+핸드폰+인터넷 비용은 한 달 고정비용으로 약 43만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예나학교에 국제팀 프로그램은 따로 없으며 오리엔테이션에 가면 다른나라 에서 온 교환학생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고 끝나면 예나 주변을 돌아다니며 소개시켜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학기 중에서는 international 축제가 열리며 요리, 문화 등을 부스에서 소개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참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학교에 학생식당 개념인 MENSA라는 곳이 있는데 메뉴가 매일 바뀌어서 이곳에서 많은 음식을 먹어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학생, 직원, 외부인은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은 Thoska에 돈을 충전해서 쓰면 됩니다.

동아리는 배구, 펜싱, 축구, 농구, 태권도 등 종류가 매우 많으며 처음 들어보는 동아리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쉽게 접해보지는 못하는 활동도 많으니 최대한 많이 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동아리는 kpop dance 동아리입니다.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K pop을 아는 것에 대해서 신기해 할 것이지만 나중에는 외국인들과 같이 춤을 추고 공연을 하게 되어 좋은 경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Koreanisch Stammtisch, 한국 모임이라는 뜻으로 2주에 한 번 한국과 한국문화에 관심 있어 하는 외국인과 한국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전반적으로 독일 사람들은 친절하고 남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면 처음보는 사람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Tip은 독일에 가기 전에 독일어랑 영어회화를 배우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독일어 공부를 많이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나에 살고계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마트나 음식점에 갈 때 나이 많으신 직원분을 만나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인을 처음 만날 때 기본적인 말이라도 독일어로 말하면 좋은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해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으며 개방적인 나라에서 살면서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하게 되었고 성격이 더욱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을 갔다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미래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